NEXEN TIRE
MAGAZINE

2025 summer
vol. 100

HELLO NEXEN

100th



여름 바다처럼 반짝이는 오늘,
우리는 100번째 인사를 건넵니다.
처음 같지만 익숙하고,
익숙하지만 늘 새롭게 마주한 얼굴들.
햇살처럼 환한 당신과 함께,
이 계절의 한가운데서 또 한 번,
헬로우, 넥센.

contents

www.nexentire.com

100호 특집

<헬로우 넥센>과 함께한 발자취

2025 summer
vol. 100

SPECIAL THEME

04 **INTRO**
100번의 계절, 100번의 이야기

06 **MESSAGE 1**
강호찬 부회장 & 김현석 사장
100호 축하 메시지

10 **MESSAGE 2**
100호 맞이 헬로우 넥센!
넥센인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

14 **MESSAGE 3**
사보는 추억을 싣고!
<헬로우 넥센>과 달려온 순간

18 **RECORD**
Counting! 1호에서 100호까지
숫자로 보는 <헬로우 넥센> 기네스

22 **HISTORY**
사보로 보는
넥센타이어의 발자취

30 **TIME TO TIME**
그 시절 찬란한 순간들
사보 속, 사진첩을 넘기며

헬로우 넥센

2025 SUMMER (통권 100호)
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양산, 바00008
신고일자 2016년 9월 29일
발행인 강호찬
발행일 2025년 7월 1일
발행처 경남 양산시 충렬로 355 넥센타이어(주)
담당 인재개발팀 전재갑 팀장, 김희진 책임
기획 및 출판 (주)대통기획 02-2269-3613
ISSN 2765-2904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 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FSC
www.fsc.org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59581

본 사보의 표지 및 내지는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STATION 1

40 **TIRE TECH**
최첨단 장비와 섬세한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완성하다!
타이어테크 역삼점

44 **CULTURE TRIP**
채울수록 비워지는 힐링의 시간
창녕공장 출강 클래스 '도자기 페인팅'

48 **밥 한끼 프로젝트**
기력과 우정 동시에 충전!
잘 차린 한끼 밥상에 솟아나는 동료애

52 **NEXEN CSR**
드넓은 논에 펼쳐진 희망의 손길
넥센타이어 '농촌봉사활동'





STATION 2

56 **미래참견시점**
심리상담도 AI 시대

60 **AI 정복하기**
AI에게도 '알아서 잘'은 어렵다!

64 **철학하는 타이어**
길 위의 감각, 삶을 읽는 타이어

68 **속마음 번역기**
훅 들어온 선배의 조언!
후배의 끄덕끄덕 속내는?

72 **ISSUE 1**
넥센타이어, 'Vision 2030: Next Level 5.0' 선포

74 **ISSUE 2**
넥센만의 정체성 되새긴 '창립 83주년 기념식'

76 **ISSUE 3**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한 '2025 퍼플 서밋 뮌헨' 성료

78 **ISSUE 4**
넥센타이어,
글로벌 기업가 단체 EO 초청해 기술력과 경쟁력 소개

80 **ISSUE 5**
푸르른 산속에서 펼쳐진 노사 화합의 장

82 **ISSUE 6**
숨 막히는 빅 매치! 노동조합 지부장배 족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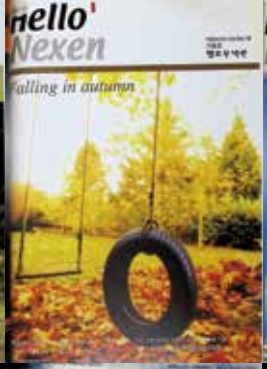
84 **NEWS**




넥센타이어
2008 SPRING


넥센타이어


넥센
사보
NEXEN
AUTUMN


Hello!
Nexen
Falling in autumn


Hello!
Nexen


가을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TEAM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MOVE
BRILLIANTLY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CHEER
UP


헬로우 넥센
New
Generation


헬로우 넥센


헬로우 넥센
Imagination


헬로우 넥센
Mind















100번의 계절, 100번의 이야기

<헬로우 넥센>과 함께한 발자취

2000년, 조용히 첫 장을 열었던 사보 <헬로우 넥센>이 어느덧 100호를 맞이했습니다. 25년 동안 한 권 한 권 정성껏 쌓아 올린 이 여정에는 넥센타이어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넥센인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향한 도전, 기술로 써 내려간 성장의 순간들, 동료들과 함께 웃고 버텨낸 평범한 하루가 <헬로우 넥센>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사보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넘어서, 넥센타이어를 이끌어 온 시간의 기록이자, 서로의 온기를 전하는 다정한 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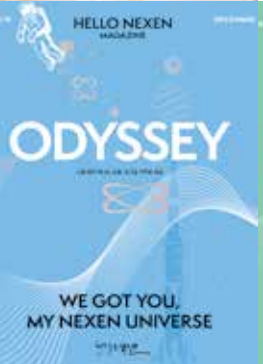
이번 100호 <헬로우 넥센>에서는 넥센타이어가 걸어온 주요 발자취를 되짚고, 사보 속에 담긴 그 시절의 현장을 다시 펼쳐보며, 사보가 이뤄낸 가치 있는 기록들도 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면을 채운 수많은 넥센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여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헬로우 넥센>을 통해 더 가깝게, 더 뜨겁게 서로를 마주하기를 기대하며, 사보가 매 순간을 함께 기억하는 '넥센인의 오랜 친구'로 남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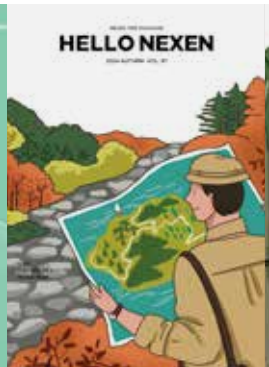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을 담아 '사람'을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기록하며

'진심'을 담아내는 따뜻한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사보 <헬로우 넥센>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헬로우 넥센>이 100호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얼굴,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담긴 사보를 만들고자 했던 그 마음이 100번의 계절을 거쳐 이렇게 의미 있는 여정을 쌓아오게 되었습니다.

100

<헬로우 넥센>은 단순한 사내 소식지를 넘어, 넥센타이어 가족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잇는 따뜻한 통로입니다.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직원들의 노고부터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소소한 콘텐츠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넥센타이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감과 자부심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100호라는 숫자에는 시간의 무게만큼이나 진심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사보를 기획하고, 취재하고, 한 줄 한 장 정성껏 만들어온 모든 제작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사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더 단단해진 우리 넥센타이어 가족 모두에게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처럼 우리의 일상을 담아 '사람'을 이야기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기록하며, '진심'을 담아내는 따뜻한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100호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우리의 미래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넥센타이어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헬로우 넥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넥센타이어 부회장 **강호찬**

100호 사보 발간의 뜻깊은 이정표를 계기로 더욱 진화된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사보 <헬로우 넥센>의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헬로우 넥센>을 아껴주시고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개의 사보를 발간한 <헬로우 넥센>은 넥센타이어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장을 기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25년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사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까지 나누며, 서로 공감하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헬로우 넥센>은 정보 전달 이상의 역할을 하며,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 그리고 조직문화의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넥센타이어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탄탄한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100호 사보 발간의 뜻깊은 이정표를 계기로 <헬로우 넥센>이 앞으로도 더욱 진화된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자유롭게 교류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바탕이 되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소중한 토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헬로우 넥센>이 앞으로도 넥센타이어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며 100호 발행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넥센타이어 사장 **김현석**

100

100호 맞이 헬로우 넥센!
넥센인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

'우리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열심히 달려온 사보 <헬로우 넥센>이 100호라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매호 넥센인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웃음, 공감의 순간을 함께 했던 사보가 드디어 '백 번째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100호를 맞은 <헬로우 넥센>을 축하하기 위해 넥센인들이 보낸 반가운 메시지들을 만나볼까요?



제가 처음 만났던 <헬로우 넥센> 사보는 43호였어요.
이제 세 자릿수에 안착하다니 대단합니다! 다음 목표는
네 자릿수! 1,000호 발간하는 그 날까지 쭉 함께해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기쁨과 감동을 부탁드려요.

김혜정 재료연구팀

매번 새로운 내용으로
회사 생활에 작은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헬로우 넥센>!!!
벌써 100호라니... 앞으로
1,000호까지 쭉쭉 가즈아~~!!

정주희 CP환경안전팀

사보로 시작하여
감동으로 이어지는
넥센인의 이야기,
100번이나 들려줘서
고마워요! 축하해요!

송민석 YP제품평가파트

넥센타이어 사보는
우리의 100번째
발자국 흔적.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여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보 100호,
함께여서 더 빛났습니다.

김동혁 YP품질관리팀

헬로우 넥센!!! 100호 축하드려요~ 따뜻한
이야기와 이벤트 덕분에 회사 생활이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유용한 소식들 기대할게요.

유고은 RE개발1팀

100번을 넘기며, 우리는
소통했고, 공감했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넥센타이어
사보 100호, 읽을수록
가까워지는 이야기!
헬로우 넥센 100호를
축하합니다!

박찬미 생산1팀 정련파트

출근 후 “헬로우~”
인사하듯 다양한 소식을
전해준 <헬로우 넥센>이
벌써 100호를 맞이했군요!
100호 축하하고 앞으로
1,000호까지 함께해요!!

박재권 글로벌법인영업2팀

헬 - 헬(hell)! 험난했던 순간들 속
로 - 로맨스처럼 피어난 기록들
우 -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넥 - 넥센타이어의 뿌리이자
센 - 센 감동을 주는 100호,
고마워요^^♡

구재본 CP생산기술팀 (CP)생산기술파트

넥센타이어 사보 100회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보를 통해 매번 새로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늘 색다른 콘텐츠를 고민하시고, 다양한 사내 소식들을 알차게 담아 주셔서 덕분에 회사 생활이 더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100회를 채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매 호마다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사보를 통해 더 따뜻하고 활기찬 넥센타이어의 이야기가 담기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의송 생산관리팀

바다 건너에서도 사보
<헬로우 넥센>을 늘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Keep up the good work!



최유민 (독)영업지원

5행시로 해보겠습니다.
헬 - 헬로우 넥센!
로 - 로또(이탈리아어로 운명)처럼 나타나
우 - 우리와 함께한 지 벌써 25주년이 되었네요!
넥 - 넥센타이어에서 앞으로도 대표적인
센 - 센터로 자리매김하시길 기원합니다. 추카추카!

유재훈 마곡기업문화팀

삭막한 회사 생활에서
촉촉한 한 줄기
빛 같은 <헬로우 넥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로 만나자~
축하해~

김혜진 품질경영팀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넥센타이어 가족들의 시원하고 유쾌한 에너지가 100호 사보에 고스란히 담겨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달려주세요!

이찬규 제품평가팀

넥센타이어 사보 100호 진심 10,000% 축하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신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보가 구성원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학민 IOP팀

백(100)호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호랑이처럼 굳세고 활기찬 사보 활동 부탁드립니다. ^^*



박정완 CP생산기술팀 (CP)생산기술파트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는 <헬로우 넥센> 100호 맞이를 축하합니다.^^ 회사와 동료들의 소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넥센타이어의 소식통이 우리 곁에 함께해서 정말 고마워요~



진철우 YP공무팀 (YP)전기파트

벌써 100호라니! 이벤트에 당첨되어 사보에 실렸을 때의 추억이 있어요. <헬로우 넥센>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고 100호 축하드립니다! 롱런하게 가보자구@@

안윤덕 (YP)생산2팀 압연

<헬로우 넥센> 사보를 받아볼 때마다 이번 달엔 어떤 사진과 경험들이 담겨있을까 기대되고 재미있게 봤는데, 벌써 100호 달성이라니 너무 신기하네요! 축하해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실어주세요!

김유빈 CP품질관리팀

입사 후 사계절을 한 번씩 겪는 동안 라디오 사연 보내는 기분으로 <헬로우 넥센>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신청했어요. 운 좋게도 실린 호수는 집에 가져가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헬로우 넥센> 100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래오래 함께해요~

김수현 글로벌법인영업3팀

*사보에 실린 메시지의 주인공은 물론, 이벤트에 참여하신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사보는 추억을 싣고!
<헬로우 넥센>과 달려온 순간

팀원들과의 문화 회식, 가족과의 나들이 등 사보 <헬로우 넥센>은 넥센인들의 소소한 일상을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사보 100호를 축하하며, 임직원과 함께한 찬란한 추억의 페이지를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그 속엔 웃음과 감동, 그리고 따뜻한 '우리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3년 봄호

매 호마다 웃음과 감동, 소통과 정보, 그리고 이렇게 소중한 추억까지 되살려주는 사보의 깊은 내공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보에서 기획해 준 덕분에 지난 2013년도에 팀원들과 연극 관람 회식을 했습니다. 영화와 야구 경기는 함께 본 적이 있었지만 연극은 처음이라 설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함께했던 팀원들과의 풋풋했던 시절을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사보 100호 발간의 기세로 200호, 300호까지 거뜬히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임직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2011년 가을호



키자니아, 아들과 함께한 직업 체험의 날

김윤상 넥스트레벨팀 운영파트



벌써 14년 전 추억이네요. 아들과 함께 잠실 키자니아에 가서 넥센타이어의 운전면허시험장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요리를 하며 셰프라는 직업도 경험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때의 시간이 사보에 남아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다시금 들춰보니 당시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퇴근 후 힐링 취미, 관상새우와 아이가 함께!

이영남 제품평가팀

벌써 7년 전이네요. 퇴근 후 넥센인들의 생활을 사진으로 참여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열대어와 관상새우를 키우는 취미를 자랑하기 위해 사보에 사연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2살이었던 막내가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

2018년 여름호





2022년 가을호

타이어 색칠놀이, 우리 아이가 디자이너

김성훈 CP공무팀 (CP)설비파트

2022년 가을호에는 '엔페라 AU7 EV'을 직접 색칠해 보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만의 스타일로 멋지게 디자인했죠. 3년 전 사보에 실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첩을 들추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쁘고 귀여운 모습에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네요. 좋은 추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가을호



사보에 기록된 탁구를 향한 우리의 열정

서용준 개발지원팀

지난 2024년 8월 29일 창녕공장에서 있었던 제1회 노동조합 지부장배 탁구대회 내용이 사보 <이슈> 페이지에 실렸어요. 덕분에 저희 탁구 동호회 참석률도 높아지고 신입 회원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모두가 탁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활기찬 동호회 생활을 즐기는 시간이 됐어요. 함께한 시간들이 사보에 담김으로써 더욱 소중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2024년 봄호



가죽 여권 케이스 클래스, 아내를 위한 손끝의 정성

김동우 품질보증팀

지난해 봄, 사내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을 때 사보팀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신혼여행 말고는 해외여행 한번 같이 못 간 아내를 위해서 가죽 여권 케이스 만들기에 도전했죠. 올해 결혼 15주년이라서 귀여운 아들, 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직접 만든 여권 케이스를 가지고 가게 되어서 더욱 뜻깊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2025년 봄호



가족 나들이, 딸아이의 웃음을 담은 한 장면

강승수 UHP 준비

올봄, 사보에서 진행한 가족 문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부산의 명물 아르떼 뮤지엄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촬영팀에서 찍어 주신 자연스러운 사진이 사보에 실렸더라고요. 책에 자기 얼굴이 나왔다며 딸 아이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Counting! 1호에서 100호까지 숫자로 보는 <헬로우 넥센> 기네스

25년 전, 넥센타이어의 사보가 첫걸음을 뗐다. 그리고 2002년 겨울호에서 공모를 진행해 <헬로우 넥센>이란 이름을 얻게 된 사보는 어느덧 100호 발행에 이르렀다. 그간의 기록들을 펼쳐보며 의미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정리해 봤다.

1ST





창간호 탄생

2000년 4월, 사보 창간호가 발행됐다. 기업 혁신을 위해 '넥센타이어'라는 새로운 사명으로 전환하게 된 직후의 일이다. <헬로우 넥센>은 임직원들의 소통 매개체이자 대외적으로는 넥센타이어를 알리는 하나의 얼굴이 됐다.

9,125day



첫 발간부터 100호까지 쌓아온 시간

계간으로 발행 중인 <헬로우 넥센>은 100호가 되기까지 제작 기간이 무려 9,125일에 달한다. 남자아이 한 명이 태어나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 정도의 세월이며 한 권의 책을 매일 한 페이지씩 써도 장편 소설 30권을 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7,504p

52p로 시작한 창간호 이후 2018년까지 꾸준히 분량을 늘려 100p에 이르렀다 지금의 84p를 유지하고 있는 사보. 타이어를 만드는 제조 현장, 해외 시장을 개척한 글로벌 법인, 고객 서비스의 최전선인 대리점,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쌓은 추억까지 넥센타이어의 다양한 사연이 모여 총 7,504p의 분량을 완성했다. 7,504p를 한 장 한 장 이어 붙이면 그 길이는 약 1,112미터. 한강 다리 하나를 건널 만큼의 길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페이지



한강대교 길이 = 1,005m

6,079명



임직원 및 가족
총 출연자

지금까지 사보에 출연한 임직원 및 가족의 수는 무려 6,079명에 이른다. 사보를 살아 숨 쉬게 만든 얼굴들은 때로는 표지의 주인공으로, 선후배의 훈훈한 조합인 멘토와 멘티로, 끈끈한 협력 관계의 파트너로 등장했다. 엑스트라로 스쳐지나간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넥센인들이 함께했다.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었고, 작은 순간도 소중한 이야기로 빛났다.

대리점

165개



변치 않는 고객 신뢰
넥센타이어의
든든한 지원군 출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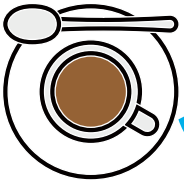
고객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현장에서 한결같이 노련한 모습을 보여준 이들은 넥센타이어의 또 다른 마스코트다. 그들만의 영업 및 고객 감동의 노하우를 통해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과 서비스를 펼쳐왔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시하는 마음만은 한결같았다. 이들의 모습은 과월호에서 'Sales 최전방을 가다', '넥센프렌즈', '베스트 파트너', '참, 고맙습니다' 등의 코너를 거쳐 현재는 'TIRE TECH' 코너를 통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150건



넥센인을 위한 사보 이벤트

25년간 사보가 구성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직접 마련한 이벤트는 무려 150건. 멘토와 멘티의 점심 한끼, 동료와 함께한 경비행기 체험, 팀빌딩 진단 프로그램 등 소규모 인원을 위한 이벤트부터 사업장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복불복 게임까지 이벤트 규모도 다양하게 진행됐다. 또한, 사보는 리마인드 웨딩, 캠핑카 여행, 단체 영화 관람 등 넥센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 만들기도 꾸준히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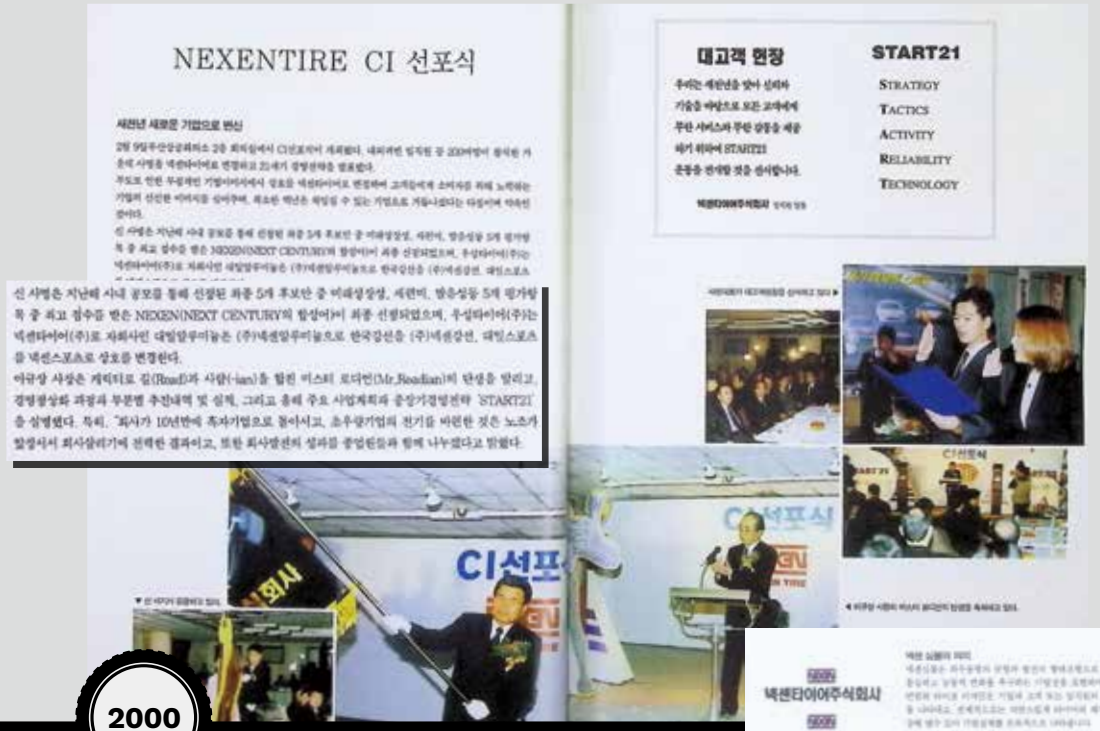
38L

100번의 마감을 거치며 담당자가 마신 커피

마감 때마다 몰려오는 졸음과의 사투를 한 잔의 커피(380ml)로 버텼다. 섭외의 난항부터 취재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 오탈자 사수 등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챙겨야 할 것들은 많고도 많았지만 완성 후의 보람은 과정 중의 고통보다 컸다.

사보로 보는
넥센타이어의 발자취

사보는 기업이 지나온 길을 담아내는 '기록'이자, 조직의 비전과 열정을 후대에 전하는 '유산'이기도 하다. <헬로우 넥센>은 매 순간의 성과와 도전을 정직하게 담아내며, 자부심의 역사를 간직한 아카이브이다. 기술을 향한 도전, 글로벌 시장을 향한 도약,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둔 넥센타이어의 진심이 깃든 결정적 순간을 함께 되짚어 본다.



2000

2000년 창간호

'넥센타이어'라는 이름으로 새 시대를 열다

2000년, 넥센타이어는 '우성타이어'에서 '넥센타이어(NEXEN TIRE)'로 사명을 변경했다. 'NEXEN'은 'Next Century'의 약어로, 21세기를 준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기업 정체성과 브랜드 전략을 새롭게 설계한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이후 CI 리뉴얼, 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넥센의 이름은 빠르게 업계에 자리 잡았다.





2006년 봄호

2004

초고성능(UHP) 타이어 시장 진출, 양산 제2공장 가동

2004년, 경남 양산에 제2공장을 준공하고 초고성능(UHP) 타이어 생산을 본격화했다. 1천억 원을 투자해 약 1만여 평 부지를 확보하고 하루 3천 개의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은, 기술 고도화와 프리미엄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력 확대의 첫 신호탄이었다.

2005

북미 시장 진입 기반 마련, 미국법인 설립

넥센타이어는 2005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단순한 수출에서 벗어나 현지 영업망을 구축함으로써, 타이어 산업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 유통 효율성과 고객 대응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이후 북미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6년 봄호





2006년 여름호

2006

생산 경쟁력 글로벌화
중국 청도공장 기공식

2006년,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인근에 약 16만 평 부지의 생산공장을 짓기 위한 기공식을 진행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성장 중이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생산 전략은 공급 속도와 원가 경쟁력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는 넥센타이어의 첫 해외 생산기지 건설로서,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의 시작점이었다.

2008

2010년 봄호



유럽 시장 기반 확보,
유럽 법인 및
이탈리아 지사 설립

2008년 유럽 법인 설립에 이어, 2009년에는 이탈리아 지사도 문을 열며 유럽 전역으로의 판매망을 확대했다. 현지 유통사와 협력해 각국 시장에 맞는 전략을 구사했고, 까다로운 인증 기준과 품질 요구를 통과하며 제품력으로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유럽 시장 내 입지 구축을 위한 기초 공사가 본격화된 시기였다.



2010년 봄호

넥센히어로즈 출범, 스포츠를 통한 브랜드 소통의 첫걸음

2010년, 넥센타이어는 서울을 연고로 한 프로야구단 히어로즈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히어로즈는 구단명을 '넥센 히어로즈'로 변경하고 유니폼과 모자, 헬멧 등에도 넥센타이어 브랜드를 부착하게 됐다. 이를 통해 넥센타이어는 스포츠를 매개로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야구장을 찾은 팬들과 함께 승리의 순간을 나누며, 넥센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2010

친환경 기술 중심의 미래 공장 구축, 창녕공장 기공식

2010년, 경남 창녕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춘 제2공장의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 공장은 친환경·저연비·고성능 제품 생산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으며, 약 50만㎡ 규모의 부지에 최첨단 설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향후 글로벌 친환경 정책 대응 및 고급 OE(신차용) 시장 진입의 거점이 될 중요한 인프라 투자였다. 2012년 창녕공장이 준공되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하루 2만 개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춘 이 공장은 전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품질 일관성과 생산 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창녕공장은 이후 고성능 승용차, SUV, 전기차용 제품까지 폭넓게 대응하며 넥센타이어의 주력 생산 기지로 자리 잡았다.



2010년 가을호



체코 신공장 기공식 개최

넥센타이어가 지난 10월 1일, 유럽 시장의 타이어 수요 증가에 따라 판매를 확대하고 주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에 신차용 타이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체코 신공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다.

2018년 첫 가동에 들어가는 체코공장은 약 65만㎡(20만 평)에 총 1조 원 이상의 투자로 이루어지며, 시장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 증설을 통해 연간 1,200만 개 이상의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다.

체코는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유럽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유럽 시장으로의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신공장이 건설될 자테츠 지역은 인력 조달을 비롯해 각종 배후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곳으로, 반경 400km 이내에 약 30여 개 자동차 업체가 위치해 있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체코공장은 중국 청도에 이은 두 번째 해외 공장으로 넥센타이어 제2의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는 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T[illegible]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현지 생산체계 구축, 유럽공장 기공

2015년 체코 자테츠 산업단지에 유럽 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이 공장은 유럽 완성차 브랜드에 대한 OE 공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현지에서 생산하고, 현지에서 공급한다'는 유럽 전략의 실현 기반이었다.

2015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 서비스 시행



넥센타이어가 업계 최초로 '타이어 렌탈'이라는 신개념 서비스 시대를 열고, 고객이 차종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넥스트레벨(NEXT LEVEL)'을 실시했다.

'넥스트레벨'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타이어를 렌탈하고 정기적인 타이어 점검 및 차량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소형 차종부터 대형 차종, SUV 차종까지 총 8개 패턴 153개 규격의 타이어를 최저 월 4,4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렌탈 기간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로 고객의 운전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최초 등록비는 5만 원이며 기간이나 타이어의 개수, 규격에 따라 비용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와 함께 전문 점검 요원인 '미스터 로디안'이 타이어 렌탈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고객의 자택 및 직장 등에 직접 방문해 차량 10대 항목을 정기 점검하는 서비스, 자택 및 직장 등에서 차량을 인수해 차량 점검 및 위치 교환 서비스 후 돌려주는 'Door To Door' 서비스, 엔진오일(고급 합성유) 3회 교환 및 타이어 위치 교환 등의 무상 서비스, 차량 수리 발생 시 정비 공임의 30% 할인 서비스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넥센타이어는 우리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해 '넥센타이어 우리카드'를 출시해 사용실적에 따라 월 렌탈 요금을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렌탈 요금 할인 외에도 테마파크, 영화관 서스도움, 커피전문점 할인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 및 전문점의 위치는 홈페이지(www.nexental.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 신형 '캐디(CADDY)'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폭스바겐이 올해 새롭게 출시한 신형 '캐디(CADDY)'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시작했다. '캐디'는 지난 1952년 전 세계적으로 1500만대 이상 판매된 폭스바겐의 주력 상용차 모델로, 올란드의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델에 넥센타이어의 '엔블루 프리미엄' 제품이 장착된다. '엔블루 프리미엄'은 화려한 무로피언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2015 독일 디자인 어워드 특별상을 받은 제품이며, 연비 효율성이 강화된 친환경 타이어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 최초 타이어 렌탈 서비스 도입, 소비자 경험의 새로운 전환

2015년, 넥센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타이어 렌탈 서비스를 도입하며 소비자에게 새로운 구매 방식을 제시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기적인 관리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대폭 높인 혁신적인 서비스였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서 나아가, 타이어 사용 전반에 걸친 고객 중심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넓힌 의미 있는 시도였다. 이는, 국내에 렌탈 문화가 확산되는 데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유럽 R&D센터 및 독일 소재 영업/마케팅 부서 통합 이전

넥센타이어,
유럽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키다

2018

유럽 R&D·영업 거점 통합, 유럽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 구축

2018년 9월, 넥센타이어는 독일 내에 별도로 운영되던 유럽 R&D센터와 영업·마케팅 부서를 켈크하임(Kelkheim)의 신축 사옥으로 통합 이전했다. 약 1만 1,000㎡ 부지에 지어진 이 친환경 건물은, 타이어 패턴에서 영감을 받은 외관과 넥센을 상징하는 퍼플 컬러로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췄으며, '유연하고 자발적인 소통'이라는 설계 철학을 기반으로 연구와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협업 공간을 완성했다.

이 통합 이전은 단순한 조직 재배치가 아니라, 유럽 고객과 완성차 브랜드에 대한 기술 대응력을 높이고 시장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었다. R&D와 영업이 한 공간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게 되면서, 넥센타이어는 유럽시장 내 제품 경쟁력은 물론, 고객 맞춤형 개발 및 신차용(OE) 타이어 공급 확대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포르쉐, 피아트, 르노, 폭스바겐 그룹 등 유럽 주요 완성차 브랜드와의 협업 기반도 더욱 강화했다.



2019년 여름호

더넥센유니버시티 준공

넥센타이어는 2019년, 서울 마곡에 중앙연구소인 '더넥센유니버시티'를 준공했다. 제품 개발, 성능 시험, 디자인 연구 등이 통합된 이 공간은 넥센타이어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핵심 공간이다.

2019



2019년 가을호







유럽공장 준공,
유럽 시대 본격 개막

2019년 유럽 공장이 준공되었다. 넥센타이어는 주요 자동차 메이커의 본고장인 유럽에 생산거점을 확보함으로써 프리미엄 OE공급과 후속하는 RE 시장의 판매 확대를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북미 기술 대응력 제고, 미국 R&D 센터 준공

2018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신축 및 확대 개편된 미국 R&D 센터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품질 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뿐 아니라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신년호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 확립

2019년, 넥센타이어는 '1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글로벌 수출 실적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해온 노력의 결실이자, 브랜드 인지도와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였다.

2020년 신년호











그 시절 찬란한 순간들
사보 속, 사진첩을 넘기며

100권의 사보가 나오기까지 정성스레 채워나간 넥센인들의 이야기! 하나되기 위한 축제 현장의 유쾌한 시간들, 전문성과 열정으로 지켜온 현장의 뜨거움, 힘든 순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동료들과의 소중한 추억까지! 사보 속 반짝이는 우리의 추억을 들춰보자.

함께 땀 흘리고, 몸으로 부딪치는 시간을 통해 허물없이 소통해온 넥센타이어.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모여 더욱 끈끈한 동료애를 만들었다.

25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로 소통하는 넥센인들



2000년 '넥센'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면서 노사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한 의미로 시작한 로디안 축제!
그 이후에도 '우리는 넥센인'이란 마음을 나누는 노사화합 축제의 자리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축구, 배구, 장애물 경기, 커플 피구, 장기자랑 등 알찼던 프로그램들!







줄다리기부터 몸으로 말하는 스피드 퀴즈, 임원들도 함께한 조별 피구까지! 박진감 넘쳤던 서울사무소 한마음 체육대회 현장~

한마음으로
오늘을 즐기는
내가 챔피언!





풋살에 복면가왕까지!
창녕군민체육관을 넥센인의
함성으로 꽉 채웠지~









'건강한 신체에 맑은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실천하는 것처럼 넥센인들의 스포츠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탁구대회 선수로 등판한 부회장님에 한 번 놀라고, 영업력을 높이기 위한 야간산행에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승리의 맛은 짜릿하군!



일명 '정신 무장 프로그램'!
총 10km 야간행군을 메인으로
한계 돌파 트레킹까지!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 시절, 현장의 반가운 얼굴들!

한 개의 타이어를 완성하기 위해 생산, 품질, 영업,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 역량을 발휘해 온 넥센인들. 현장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더라도 선배에서 후배로 내려온 프로페셔널은 변함이 없다.



2000년 제조2과 성형 '울타리 분임조'

일일 생산 22,000개를 달성한 능력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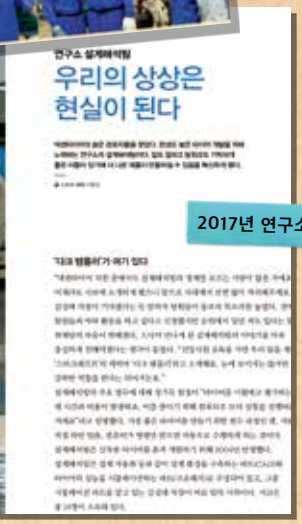
2008년 재료파트 '조약돌 분임조'

분임조 네이밍의 깊은 뜻은? 조약돌처럼 단단하면서 성실한 팀워크를 추구한다는 의미!



2012년 양산 PCR 파트





2017년 연구소 설계해석팀

요염한 포즈!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2001년 해외영업팀

유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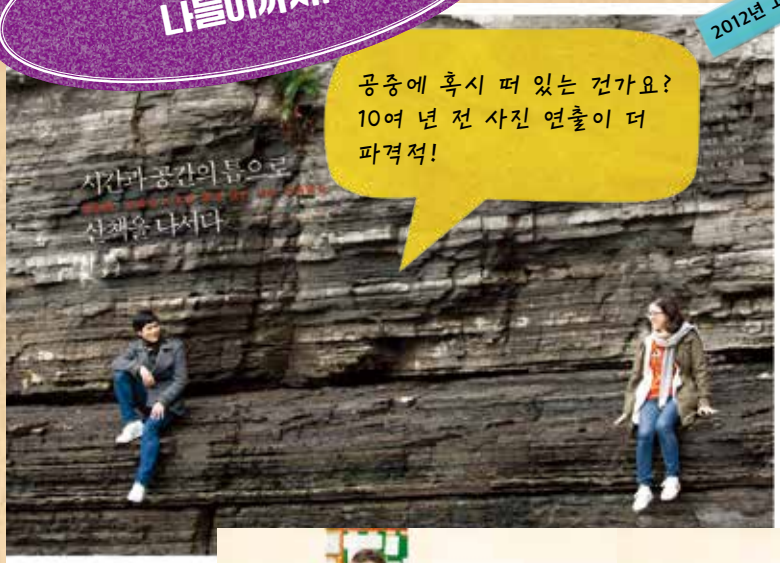
헉! 김현석 사장의
풋풋했던 중아과
과장 시절 포착~



2002년 제1기술그룹

김남균 BS장과
장홍주 BS장의 앳된
모습도 찾았다!

취미 생활부터 나들이까지!



공중에 흑시 떠 있는 건가요?
10여 년 전 사진 연출이 더
파격적!

2012년 고성으로 동료와 여행





2010년 2공장 공무팀 전기파트 번개분임조

딸기잼, 치약, 섬유유연제, 쌀,
휴지까지 생필품을 걸고 시작된
'살림장만 퀴즈 대회'!
관전 포인트는 난센스 퀴즈.

Q.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가수는?
이..미...자!
Z세대 넥센인! 이미자 아시나요? ^^::

드디어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도 난센스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는 가수는? 하지만 이번엔 분임조원들 모두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눈치. 도저히 답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회자가 내놓은 힌트는 '흑산도 아가씨', 순간 정답을 눈치챈 듯 눈이 빛나는 분임조원들. 그런데 보아하니 분임조 막내인 민경식 사우에게 마지막 퀴즈 당첨의 영광을 주기로 한 모양이다. 그런데 정작 민경식 사우는 정답을 모르는 모양이다. 한참을 답답해하던 분임조원들이 "이~", "이미~" 라며 직접적인 힌트를 건네고 나서야 "아~ 이미자?" 라고 민경식 사우가 답하고, 가을밤이 살림장만 퀴즈대회의 막도 내렸다.

'동료라 적고 소울메이트'라고 읽는다! 회사에서 만났지만 텔레파시 통하듯 딱 맞는 취향으로 가까워 지기도 하고, 사보에서 준비한 이벤트로 함께 여행을 하거나 색다른 체험을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던 넥센인들의 시간들을 모아봤다!

4주간의 교육을 마쳤던 2012년의 신입사원들은
새내기의 패기를 담아 넥센히어로즈 원정경기 응원에
나섰다. 벌써 13년 전 얘기~
다들 건강한 40대를 맞이하고 있으신가요?





2012년 넥센히어로즈 신입사원 원정 응원

드디어 창단 후 첫 우승에 도전장을 던진
넥센히어로즈! 비록 승리는 못했지만 양산/창녕공장
280명의 넥센인들의 함성으로 하나됐던 그날~





2015년 한국시리즈 넥센히어로즈 우승 도전

시간은 흐르고 사진은 바래지만,
그 안에 담긴 넥센인의 밝은 에너지는
더욱 선명합니다. 모두가 함께여서
행복했던 순간들, 그 시간의 흔적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돌아볼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될 것을 기대하며
<헬로우 넥센>은 '우리만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05년 넥센인 웃음 화보

STATION 1

TIRE TECH 40

CULTURE TRIP 44

밥 한끼 프로젝트
48

NEXEN CSR
52

생명력으로 가득한 여름의 시작, 넥센타이어의 활기찬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술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타이어테크 역삼점의 디테일한 서비스의 차이,
창녕공장 임직원들을 위해 출강 이벤트로 진행한 '도자기 페인팅 원데이 클래스'의
힐링 현장, 든든한 도시락으로 기력 보충 완료한 밥 한끼 프로젝트, 그리고
영농철을 맞아 파주 농가를 찾은 넥센인들의 벼농사 못자리 농촌봉사활동까지!
여름의 뜨거운 에너지를 닮은 생생한 순간들을 지금 만나보세요.

Text. 편집실 **Photo.** 김정호

최첨단 장비와 섬세한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완성하다!

타이어테크 역삼점

서울 강남의 중심부, 역삼역 인근에는 최첨단 장비와 정교한 기술력이 어우러진 특별한 타이어 전문점이 있다. 바로 타이어테크 역삼점이다. 2021년 3월에 문을 연 이곳은 4년 동안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며 자리매김해 왔다.



우수한 품질 관리와 고성능 장비로 차별화

타이어테크 역삼점은 1층 정비 공간, 2층 고객 대기실 겸 카페, 3층 타이어 보관소까지 총 지상 3층의 규모로 구성돼 있다. 먼저 넓고 쾌적한 2층 카페에는 특별한 서비스가 숨어 있다. 고객들은 기다리는 시간 동안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차량 점검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층에 마련된 별도의 타이어 보관소는 타이어 품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소한 매장의 경우 외부 공간에 타이어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계절이나 날씨에 따른 온도 차가 타이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역삼점은 안정적인 타이어 관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곳의 차별점은 장비에서도 드러난다. 고가의 수입산 얼라이먼트 장비를 비롯한 초고성능 타이어 전용 장비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비의 기반이 된다. 특히 얼라이먼트 작업의 정밀도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한다. “얼라이먼트 여기서도 만족 못 하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만족 못 합니다”, “차를 좋아해서 까다로운 편인데도 이곳에서는 타이어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느껴요” 등의 고객 리뷰 글이 높은 만족도를 증명해 주고 있다.



타이어테크 역삼점
서울 강남구 도곡로 143 1층 / 02-538-5989









고객들의 평가는 단지 장비의 성능 때문만은 아니다. 역삼점에서는 얼라이언트 작업 진행 시, 실제 점검 수치를 근거로 작업 전후 차이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작업 내용과 차량 상태에 대해 꼼꼼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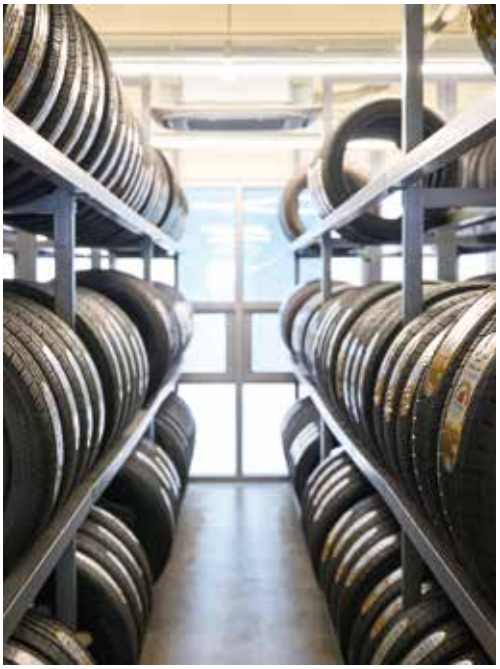
"작업 전후 수치를 보여드리며 이 부분이 틀어져서 이렇게 수리를 했다고 차량 상태를 설명드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 그래서 정비 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구나' 하며 스스로 납득하게 되죠."

'작업 끝났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서비스를 끝내는 것과 고객이 차량 상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삼점이 가진 프리미엄 서비스의 힘이다. 여기에 더해 점장은 좋은 장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장비를 제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의 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베테랑 점장과 직원은 차량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면서 늘 기본에 집중하고자 한다.

차량 관리의 작은 배려, 신뢰로 이어지다

역삼점은 고급차·수입차 고객의 재방문율이 높은 매장이다. 수입차 고객 비중이 높은 만큼, 차량을 만질 때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BMW 차량을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고객이 얼라이먼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무려 강원도 철원에서 달려온 적이 있었다. 미세한 흠집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비 기계에 달린 부품을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내는 모습을 본 고객은 섬세한 케어에 큰 감동을 받았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배려였지만, 이러한 작은 배려가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게 된다.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는 순간조차 혹여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레 동의를 구한다. 여성 고객에게는 점검 상황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안내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의 감사 인사는 물론 과일 상자나 따뜻한 손 편지로 돌아오기도 했다.





"회사를 사랑하고, 제품에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고객에게도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이 제품을 믿고 좋아해야, 그 진심이 결국 고객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고객이 보기에도 티가 난다는 점장의 설명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녹아 있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그것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도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최전방에서 넥센타이어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타이어테크 역삼점은 앞으로도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여름철 타이어 관리!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공기압 점검

여름에는 36~40PSI 정도를 권장하며, 2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차량 계기판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특히 장거리 이동이나 고속 주행 전에 한 번 더 체크할 것!



마모 상태 점검

타이어의 홈은 배수를 도와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한다. 장마와 폭우에 대비해 홈의 깊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크랙 점검

타이어 측면의 갈라짐 확인은 필수! 노화, 잘못된 공기압 관리나 보관 방법 등 크랙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고속 주행 시 작은 크랙도 급격히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휴가 시즌에 고속도로 위를 달리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Text. 편집실 **Photo.** 임동욱



채울수록 비워지는 힐링의 시간

창녕공장 출강 클래스 '도자기 페인팅'

연일 이어지는 업무 속에서 때론 잠깐의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짧은 여유가 하루를, 더 나아가 한 주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창녕공장 16명의 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도자기 페인팅 원데이 클래스가 바로 그런 소중한 쉼표가 되어주었다.















스텐실로 입힌 감성, 기다림으로 완성되는 즐거움

6월 4일 수요일 오후, 본관동 교육실이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채워졌다. 각자의 자리 위에 가지런히 놓인 초벌 도자기와 붓, 물감, 글자 도안 등의 재료를 본 직원들의 얼굴은 설렘과 기대로 슬며시 물들었다. 업무와 업무 사이에 작지만 활력을 불어넣는 충전의 시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클래스에는 환경안전팀, 품질검사팀, 생산기술팀을 비롯한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삼삼오오 참여했다. 평소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에 관심이 많았던 남자 직원들의 참여도가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그림 그리는 기쁨, 나만의 도자기를 사용하는 만족감까지 일석이조의 재미를 누릴 수 있는 이번 클래스는 채색 완료 후 완성품을 받기까지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유약을 입히고 일정 시간 건조한 뒤, 1,250도 고온에서 소성(굽는 것)해야 진짜 도자기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상회(도자기 표면 위에 채색)기법'과 '하회(유약 아래에 채색)기법'으로 나뉘는데, 오늘 체험은 상회 기법 중에서도 물감을 톡톡 찍어 바르는 스텐실 채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나만의 속도와 색을 찾아가는 시간

초벌한 도자기는 아직 표면이 거칠다. 표면을 사포로 매끈하게 다듬는 것으로 본격적인 클래스가 시작됐다. 다듬는 작업을 완료했다면, 물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채색에 들어갈 차례. 크고 끝이 뭉툭한 붓으로 바탕색을 표현해 주고, 세부 묘사나 글씨를 쓰는 것은 얇은 붓을 사용한다. 물과 물감의 적정 비율은 3:7. 고온 소성 후 색이 연해지는 점을 고려해 진하게 칠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붓으로 톡톡 두드리며 색을 입히는 스텐실 기법으로 각자 자신의 도자기를 채우기 시작한다. 저마다 머릿속에 그려온 그림들이 확실한지 누구 하나 망설이는 이가 없다.

누군가는 반려견의 얼굴과 이름을 새기고, 누군가는 딸의 이름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담았다. 텅 빈 도자기가 각자의 색으로 생기를 찾아가는 순간이다. 작업에만 오롯이 집중함으로 생긴 고요함은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든다. 참여한 직원들은 “색을 칠하다 보니 완전히 몰입해서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느긋한 시간이 업무 중간에 주어진다는 게 감사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가 붓끝에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낸 이번 클래스. 완성된 도자기는 시간이 지나 각자의 공간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을 내면서, 오늘 얻은 작은 쉼표가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Mini Interview



정우현 사원 / (CP)TPM파트

사택에 살다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에 접시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직접 만든 것이 첫 접시라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온 동료분이 잘 만들어지면 선물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접시가 2개네요. 득템입니다.



윤지성 사원 / CP품질검사팀

현재 중학교 1학년인 딸에게 줄 선물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약간 사춘기가 왔지만, 여전히 사이가 좋아요. 딸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지율아~ 친구 같은 아빠 말고 친구가 될게!!"**



김종호 파트장 / (CP)TPM파트

에코백 만들기, 컵 만들기 등 평소 친구들과 새로운 체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도자기 클래스처럼 생산적인 활동이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완성품이 기대가 됩니다!



임정한 사원 / CP품질검사팀

평소에도 아이들과 원데이 클래스나 다양한 나들이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캠핑을 제일 많이 하고, 서해에서 해루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경험을 해봤네요. 완성품은 아내에게 바칠 예정입니다.



김상림 사원 / CP환경안전팀

건강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꾸준히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용적인 체험이라 더 좋았습니다.

Text. 편집실

기력과 우정 동시에 충전!
잘 차린 한끼 밥상에 솟아나는 동료애

지난 호 참여자들의 만족스러운 후기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밥 한끼 프로젝트!
이번에도 동료와 함께 나눈 훈훈한 식사로 몸도 마음도 든든하게 채웠다는 넥센인들의 후기가 도착했다.
서로에게 사랑의 총알을 날려달라는 편집실의 식사 미션 전달에 예상치 못한 개성 넘치는 사진들이
도착했다는데?! 지금 바로 만나보자.



야간 근무 전의
든든한 고기 타임!



밥 한끼 파트너
YP생산2팀
생산지원파트
정중식 조장

이벤트 신청자
YP생산2팀
생산지원파트
최영호 사원

<헬로우 넥센> 100호를 축하드리며, 밥 한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밥 한끼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 사보에 한번은 실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함께 식사 시간을 나눈 분은 저와 가장 친하고 우정이 깊은 동생입니다. 늘 솔선수범하는 동료이기도 하죠. 처음으로 사보 이벤트에 신청해 봤는데, 아주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보에 나올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MISSION
빵야 빵야! 애정 듬뿍
사랑의 총알을 쏴주세요!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영호 형님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깜짝 이벤트 같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 더 많이 먹으라며 챙겨주는 훈훈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 업무에 있어서도 도와가며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생활하기를 기원합니다. <헬로우 넥센> 100호 발행 또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함을 표합니다. 넥센타이어 파이팅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우리 우정 뽀레버



이벤트 신청자
CP생산기술팀
(CP)생산기술파트
구재본 책임

밥 한끼 파트너
CP생산팀
(CP)가류파트
홍병진 책임

요즘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밥도 대충, 사람들과의 대화도 대충이더라고요. '밥 한끼 프로젝트'를 보고 "그래, 이참에 밥심 좀 챙기자!" 싶어서 신청했어요. 한끼 파트너는 같이 입사해서 지금까지 쭉 같은 속도로 달려온, 말 그대로 '회사 인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예요. 서로 투덜거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버팀목처럼 지내고 있죠. MBTI도 ESTJ로 같답니다(똑같은 성격이라 주변에서 피곤해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괜히 쑥스러운 마음에 사랑의 총은 서로의 머리를 겨냥하고 말았네요. 눈빛만 봐도 "야, 너도 그 생각 했지?" 이런 교감이 되는 동료로 계속 잘 지냈으면 해요. 오랜만에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밥을 먹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도시락뿐만 아니라 대화도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사소하지만 특별한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서로 장난도 치고, 일도 챙기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회사 친구'로 남자! 다음엔 네가 술 한턱 쏴라 ㅎㅎ"

MISSION
빵야 빵야! 애정 듬뿍 사랑의 총알을 쏴주세요!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흔히 사회에 나와서는 친구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구재본 책임은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지만 정말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여름이면 계곡에도 가면서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더 자주 만났어요. 최근 2~3년간은 서로 육아로 바빠 계곡에 함께 가지 못했는데, 아이들이 얼른 자라 두 가족이 함께 놀러 가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몸이 오그라드는 미션과 함께
추억 쌓기 완료~



옆자리에 앉은 같은 팀 책임님이지만, 개별적인 시간을 가져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션 인증샷을 위해 정말 오랜만에 남자와 단둘이 사진 찍었는데 역시나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하하! 많이 오글거렸지만 함께 깔깔대며 찍은 사진 덕에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밥 한끼 프로젝트는 평소에 친해지고 싶었거나, 혹은 얼굴은 매일 보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여유가 없던 사람들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료들이 많을수록 사내 분위기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동료가 되길 바라며, 업무 외 실생활에서의 고충과 꿀팁들도 나누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ISSION
빵야 빵야! 애정 듬뿍 사랑의 총알을 쏴주세요!



밥 한끼 파트너에게 답장이 왔어요!

같은 경력직 입사자인데다 맡은 업무도 유사해 동반자로, 때로는 서로의 조언자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같이 마시는 메이트지만, 확실히 그것과는 또 다른 좋은 시간이었어요. 매번 지인들에게 남발하는 지키기 어려운 약속인 '밥 한번 먹자'라는 좋은 기회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신 동료와 프로그램 기획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Text / Photo. 마곡기업문화팀 유재훈 책임





드넓은 논에 펼쳐진 희망의 손길, 넥센타이어 '농촌봉사활동'

영농철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농협중앙회와 넥센타이어의 농촌봉사활동이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더넥센유니버시티 임직원 24명이 모여 파주 광탄농협 농가에서 벼농사 못자리 작업을 펼쳤다.



'못자리'는 벼농사에서 볍씨를 뿌려 모를 기르는, 모내기 전의 중요한 준비 단계이자 장소를 의미한다. 넥센인들은 모의 건강한 생육을 도울 수 있도록 농가 측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모판을 논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른 오전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은 방대한 논 면적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이어졌다. 넥센인들은 이마를 뒤덮은 땀방울과 흙탕물로 가득 찬 장화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하나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봉사활동을 마친 다음 날 농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큰 힘이 되었으며,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넥센인들 또한 "여느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봉사활동이었음에도 매우 보람되고 뿌듯한 하루였다"며, "벼가 무르익을 가을철의 농촌봉사활동 또한 기대된다"는 따뜻한 후기를 전했다.





STATION 2

미래참견시점 56

AI 정복하기 60

철학하는 타이어 64

속마음 번역기	ISSUE	NEWS
68	72	84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다채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 대신 심리상담을 맡게 된 AI 챗봇,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프롬프트 예시 활용법',
길 위에서 감각을 쌓으며 진화한 타이어처럼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경험의 가치, 그리고
선배의 조언과 후배의 반응에 담긴 속마음을 다뤄봤습니다.
이 밖에도 '넥센타이어 Vision 2030: Next Level 5.0' 선포식과
창립 8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현장 이야기까지.
깊이 있는 통찰과 따뜻한 공감이 함께합니다!

* 콘텐츠 제공: MIT Technology Review

최근 몇 년간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심리 상담 분야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심리 상담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간과 비용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AI 기반 상담 도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최근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가이젤 의과대학에서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 심리 상담 챗봇 테라봇이 임상시험을 통해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는 첫 공식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리상담도 AI 시대

대화만 나눴을 뿐인데 우울증이 나아졌다?



AI 심리상담, 말뿐인 기술 아닐까?

생성형 AI가 심리상담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낯설지 않다. 챗GPT, 캐릭터AI 같은 챗봇을 감정 토로의 창구로 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현재 많은 기술 기업이 자사의 심리 상담 AI 도구를 사용하면 전문 상담사보다 더 자주, 더 저렴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공감하는 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료를 받더라도 상담 시간은 주당 45분 내외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써 왔지만, 두 가지의 주요 장벽에 부딪혀 왔다.

첫 번째는 챗봇이 상담 중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발언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실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연구진은 챗봇을 명시적인 규칙에 따라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해 왔다. 사전에 승인된 문장으로 구성한 제한적인 응답 목록에서 답변을 고르게 하는 방식으로, 1960년대에 개발된 심리 치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엘리자(Eliza)'도 이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이러한 챗봇은 대화의 몰입도가 떨어져 사용자들이 금세 흥미를 잃는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효과적인 심리 상담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공통의 목표 설정'과 '협력적 관계 형성'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맞춤형 데이터로 우울증 51% 감소

2019년 오픈AI의 GPT와 같은 초기 대형언어모델(LLM)이 등장하던 시기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가이젤 의과대학 소속 정신의학 연구진은 생성형 AI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증거 기반(evidence-based) 응답을 제공하도록 AI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일반적인 정신 건강 관련 대화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곧 수천 시간 분량의 실제 심리 치료 세션 녹취록을 바탕으로 학습 데이터를 재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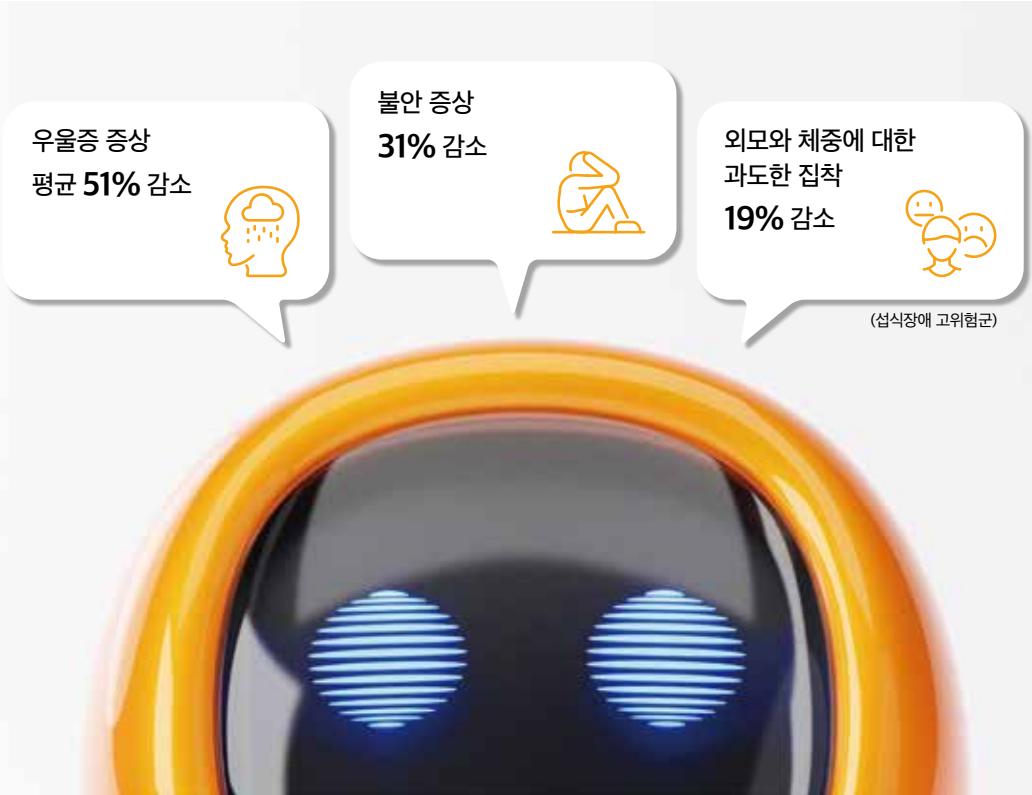
생성형 AI 기반 심리 상담 챗봇 '테라봇'

이번 연구의 제1 저자이자 다트머스대학 정신의학 연구원인 마이클 하인츠(Michael Heinz)는 인터뷰에서 "초기 데이터로 얻은 건 '흠,' '계속 말씀해 보세요,' '당신의 문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겁니다' 같은 말들이었다"며 **"우리가 기대했던 심리 상담 대화라기보다는 그저 전형적인 심리 상담 대화를 모방한 것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연구팀은 증거 기반 치료법을 바탕으로 직접 맞춤형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고, 이를 최종 AI 모델 학습에 활용했다.**

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AI 심리 상담 챗봇은 메타의 라마(Llama)처럼 인터넷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범용 모델을 일부 수정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은 섭식장애처럼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인츠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살을 빼고 싶다'고 말했을 때 챗봇은 사용자가 이미 저체중 상태여도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며 "하지만 인간 상담사라면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가이젤 의과대학 소속 정신의학 연구원과 심리학자들이 공동 개발한 AI 챗봇 '테라봇(Therabot)'은 우울증, 불안, 섭식장애 위험이 있는 21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들을 절반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테라봇과 8주간 정기적으로 대화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기존 생활을 유지하는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테라봇 이용자들은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I가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참가자가 스스로 대화를 시작하는 구조였다. 결과는 놀라웠다.

AI 챗봇 '테라봇' 임상 시험 결과



이 수치는 참가자 자가 보고 설문을 기반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존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비교해도 상당한 효과다. 연구진은 실제 상담사와 16시간 이상 상담한 임상시험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절반 이하 시간으로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하인츠는 "이러한 수치는 과거 실제 상담사와 16시간 상담을 받고 효과를 측정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테라봇은 이와 유사한 효과를 절반 정도의 시간 만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지만, 이처럼 참가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감독 없는 확산은 위험!

상용화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감독'의 문제다. 하인츠는 이번 임상시험 초기 챗봇의 응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메시지를 모두 직접 검토했다. 물론 참가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은 조치였다. 그러나 향후 이 같은 심리 상담 챗봇이 더 널리 보급된다면, 이런 실시간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결과가 빠르게 성장 중인 AI 심리 상담 챗봇 산업의 타당성을 입증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하인츠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부분의 챗봇이 인지행동치료(CBT) 등 증거 기반 접근법에 따라 훈련되지 않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연구진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하인츠는 "정식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AI 기반 웹사이트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FDA가 이들 사이트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사례는 드물다. 그는 "만약 FDA가 실제로 규제에 나선다면, 현재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업체들 가운데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효과에 대해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했다.



AI 챗봇에 감정 의존하는 사람들

심리상담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챗봇조차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 대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오픈AI의 내부 조사에서도 챗GPT 사용자들이 심리적 안정감이나 감정 위로를 얻었다는 반응이 다수 있었다.

장크리스토프 벨리슬-피퐁 사이먼프레이저대 보건윤리학 조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술이 공중보건 시스템이나 보험 체계에 정식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비의료 AI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기술은 단순한 정보 제공 도구를 넘어서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AI를 통해 감정적 지지를 받고, 개인적 문제를 털어놓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테라봇 연구는 생성형 AI가 단순히 대화를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 정신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도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핵심은 모델의 성능이 아니라, 무엇으로 훈련시켰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다.

모든 AI 챗봇이 상담사가 될 수는 없다. 적절한 데이터, 임상적 기준, 정교한 설계, 감독 체계가 갖춰졌을 때만 AI는 유효한 상담 도구가 될 수 있다. 심리상담 AI의 등장은 인간 중심 상담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을 위한 기술적 확장이다. 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윤리적 설계와 제도적 감시가 필수다. 기술은 충분히 준비됐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기술을 다룰 준비가 됐는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Text. 편집실

AI에게도 '알아서 잘'은 어렵다!

예시의 기술편



최근 유명 애니메이션의 화풍을 담은 그림이 메신저 서비스의 프로필 화면을 점령했었다. 어떤 인물 사진이든 "OOO 풍으로 바꿔줘~" 라는 프롬프트 한마디면, 마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림으로 뚝딱 바뀐다. 이처럼 정확한 예시가 있을 때, 그에 맞는 결과물을 손쉽게 내놓는 AI다. 상황에 맞는 예시를 주면서 AI를 한층 더 요령 있게 조련해 보자.

예시하나만 줬을 뿐인데?

퀄리티 업그레이드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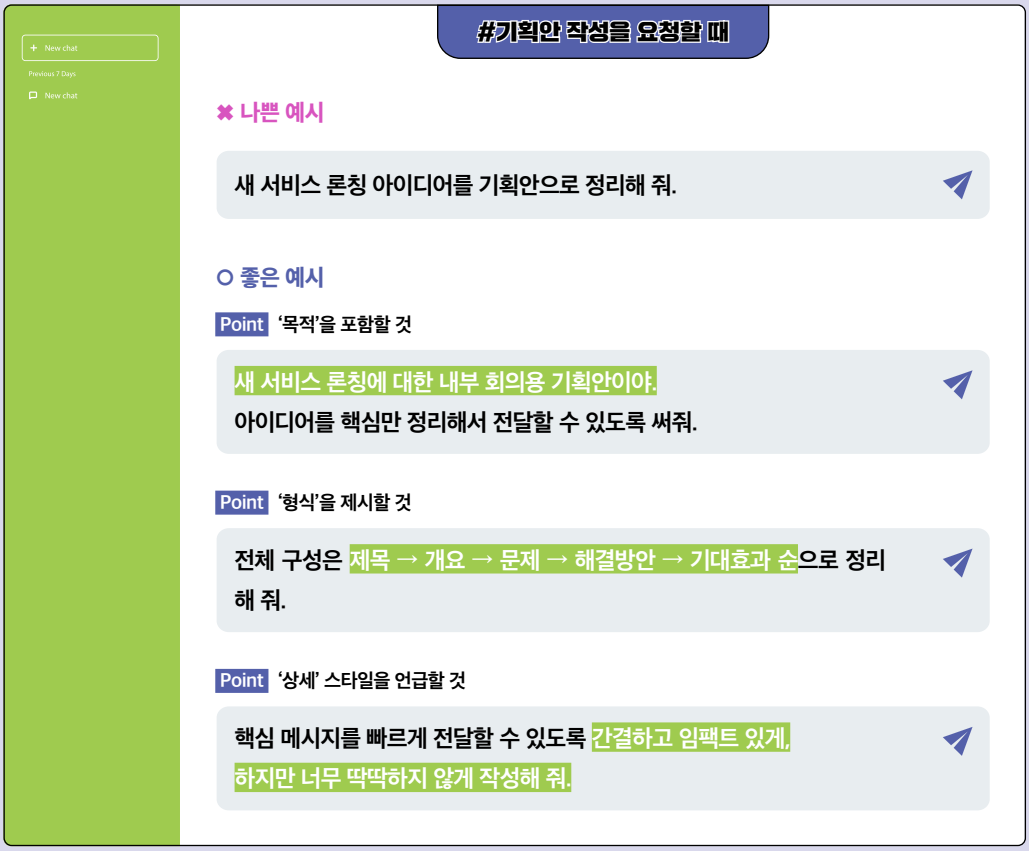
AI는 방향성을 좋아한다. 예시나 제한 조건을 추가해 AI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여지를 줄일수록 결과물이 훨씬 명확해진다.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을 간단하게라도 예시로 던져 보자. 결과물의 완성도가 한층 달라질 것이다.



애매한 프롬프트는 시간 낭비

요구사항은 분명하게!

예시를 주더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이 중요하다. 막연하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말고, 대상과 형식, 요구사항을 분명히 제시하도록 하자. 요구가 너무 단순해서 용도와 상세 스타일을 파악할 수 없는 예시는 추천하지 않는다.



예시는 단순 참고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기획안 써줘"처럼 뭉뚱그린 말보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쓸 것인지까지 함께 알려줬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더욱 가까워진다. AI는 인간처럼 맥락을 추론하지 못하니, 그 빈틈은 우리가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김 대리, 예시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요?!

예시의 중요성도 알았고, 어떤 예시가 더 적합한지도 감을 잡았다. 하지만 업무 상황에서 때마다 필요한 예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고민이다. 예시를 짜내다가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은 이들을 위해 예시 생성법도 몇 가지 소개한다.

예시 만드는 법이 고민된다면?

① 과거 업무 기록에서 추출하기

예시를 '창작'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부분의 예시는 이미 나의 메일함, 회의록 등의 각종 자료에 존재한다. 여기서 실제 문장을 추출한 다음 예시로 써보자.

-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썼지?
- 그때 잘 됐던 문구나 표현은 뭐였지?
- 내가 참고한 이메일과 보고서는 어떤 형식이었지?

② 업무 매뉴얼이나 정책 문서에서 찾기

회사 내부 문서나 가이드라인에도 효과적인 예시가 이미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활용하면 공식적인 톤과 표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예시를 만들 수 있다.

- 이 매뉴얼에서 사례로 든 부분은 뭐가 있지?
- 공식 문서에서 사용된 표현 중 내 업무에 맞는 건?
- 사내 문서 관리 시스템에서 키워드로 검색해 볼까?

③ 경쟁사 사례나 업계 리포트에서 영감받기

업계 뉴스, 리포트, 경쟁사 발표자료를 직접 업무에 맞게 변형해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그들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지?
- 어떤 톤과 방식으로 설명했을까?
- 우리 스타일에 맞게 바꾸려면?

④ AI에게 예시도 요청하기

'나는 정말 뭣도 모르겠고 막막하다!'라는 이들도 걱정할 것 없다. 예시를 뽑는 것 자체도 AI로 해결할 수 있다.

 # 프롬프트 예시

보고서 도입부 스타일 예시 3가지 보여줘. 각각 다른 톤으로(격식, 친근, 분석적).
그중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내가 써볼게.

↳ AI가 던진 예시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고른 뒤, 그것을 기준으로 프롬프트를 계속 발전시켜 보자.

Text. 편집실

길 위의 감각,
삶을 읽는 타이어



비 오는 날 젖은 아스팔트를 지나고, 자갈 가득한 산길을 밟으며, 푹 꺼진 모래밭 위를 지날 때마다 타이어는 노면의 질감을 몸으로 읽는다. 미끄러질 듯한 순간을 감지하고, 움푹 팬 곳에서는 반사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며 버틴다. 그렇게 타이어는 매 순간 '길의 성격'을 감각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삶도 타이어와 닮아 있다. 삶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길을 마주한다. 직접 부딪히고 걸어보며, 때로는 미끄러지고 또다시 일어서며 나만의 감각을 찾아간다. 타이어가 몸으로 길을 읽듯, 우리도 몸으로 인생을 겪으며 삶의 기술을 익혀가는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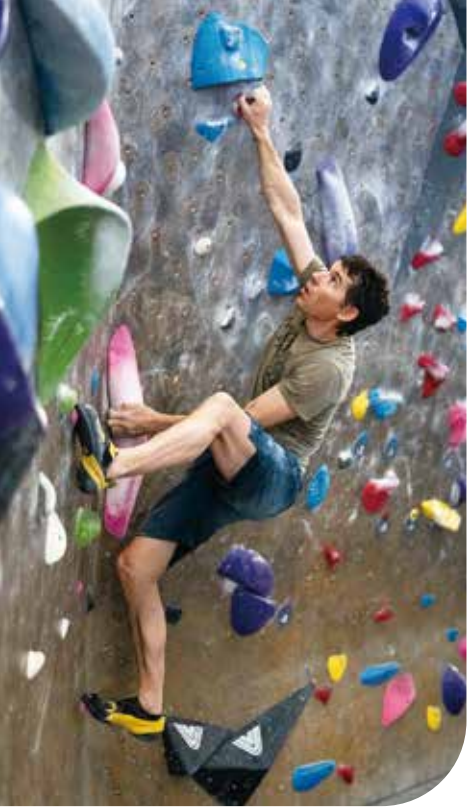


겪어야 비로소 알게 된다

타이어는 처음부터 뛰어난 감각을 가진 자동차 부품이 아니다. 도로 위를 달릴수록, 다양한 노면을 접할수록 **타이어는 더 많은 데이터를 '몸'으로 기억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빗물, 자잘한 돌멩이, 갑자기 깊어진 포트홀 같은 환경을 겪으며, 타이어는 조금씩 더 정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키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동력, 접지력, 회전 반응성이 개선되고, 그 피드백을 분석해 더 나은 타이어가 탄생한다. 즉, **경험이 좋은 타이어로 진화하는데 연료가 되는 셈이다.**

우리의 삶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도, 중요한 순간에 감을 믿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모두 경험이 쌓여 생긴 내면의 '감각' 덕분이다. **책에서 본 정답보다, 직접 겪으며 배운 시행착오의 흔적이 훨씬 더 깊이 남고, 그것이 결국 나만의 판단 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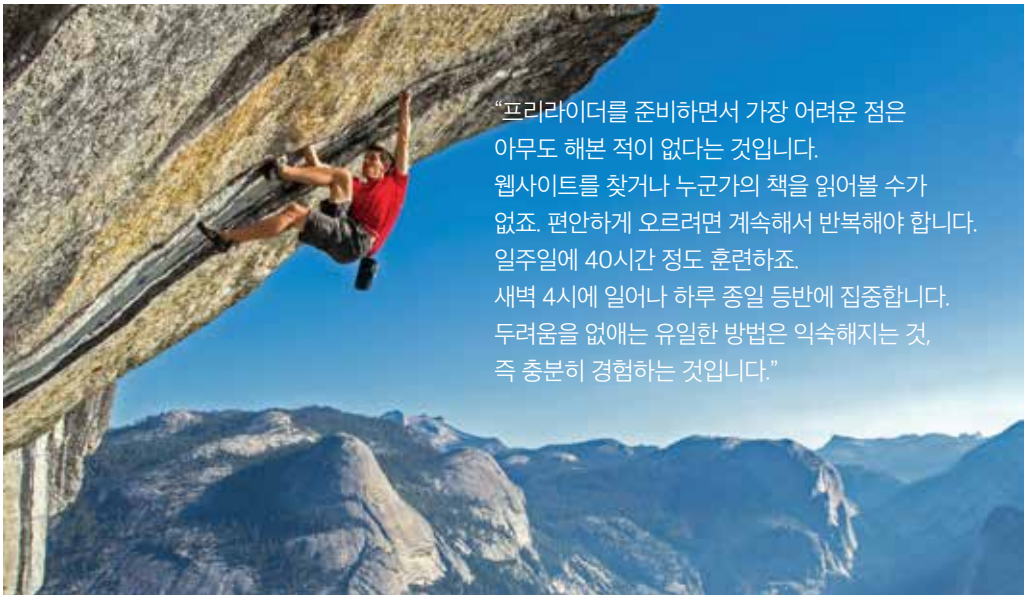
AI를 통해 더 빠르게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지금! '직접 경험한 사람'의 역량은 독보적이며 차별화의 토대가 된다. 같은 정보가 주어져도 경험치에 따라 자신만의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험은 그 사람만의 감각이 되고, 그 감각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경쟁력이 된다.** 타이어가 노면을 읽으며 진화하듯, 우리도 겪어야 비로소 나아가는 것이다.



알렉스 호놀드: 감각은 경험의 누적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프리 솔로(Free Solo)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 프리 솔로란 로프나 안전 장비 없이 오로지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등반 방식으로, 생명을 담보로 한 극한의 도전이다. 알렉스 호놀드가 단숨에 세계적 주목을 받은 계기는 2017년,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엘 캐피탄'을 장비 없이 완등한 사건 때문이다. 높이 900m, 평범한 사람이라면 쳐다보기도 아찔한 수직 암벽을 그는 단숨에 올랐다. 이 도전은 다큐멘터리 영화 《프리 솔로(Free Solo)》로 제작돼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겉보기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도전 같지만, 호놀드의 등반은 철저한 준비와 반복된 '경험'의 산물이다. **그는 수개월 동안 같은 경로를 수백 번 반복해 오르며 바위의 모양, 손가락이 걸릴 틈, 발 디딜 각도를 몸에 새겼다.** 등반 도중 손에 땀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어디에 멈춰 손을 닦을지까지 시뮬레이션하며 암벽의 모든 감각을 기억해 냈다. **그에게 암벽은 '읽어야 할 벽'이 아니라 '이미 체화된 기억'이었다.**



호놀드의 말처럼 경험은 막연한 불안감을 감각으로 바꾸며, 그 감각은 곧 생존의 기술이 된다. 그의 등반은 단지 스포츠가 아닌, 인간이 어떻게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감각을 길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경험은 그에게 최고의 안전장치였고, 가장 정밀한 나침반이었다.



핀치새: 환경을 읽고 변화에 적응한 진화의 증거

경험을 통해 감각을 확장해 나가는 건 인간만의 일이 아니다. 자연 속 생명체들도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생존 방식을 조율해간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가 대표적인 예다. 핀치새는 다윈이 1835년, 비글호 항해 중 갈라파고스 제도에 머물며 관찰한 새인데 섬마다 서식하는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현저히 달랐다.** 씨앗을 깨먹는 핀치새는 **짧고 두꺼운 부리**, 곤충을 잡아먹는 새는 **뾰족하고 가느다란 부리**, 선인장 꽃을 빠는 새는 **길고 휘어진 부리**를 갖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유전적 돌연변이가 아니라, **세대에 걸친 환경 적응이 누적된 결과**였다. 즉, 먹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일부 개체가 더 잘 살아남았고, 그 생존한 개체들이 가진 부리의 특성이 후손에게 전해지며 점차 고정된 것이다. 이 과정은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닌 세대를 이어가는 축적된 삶의 기록**이었다.

핀치새의 진화는 생명체가 어떻게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에 적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새들은 먹이 환경이라는 환경을 온몸으로 겪었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바꾸었다. 마치 타이어가 노면의 상태에 따라 진화하듯, 핀치새의 부리는 주변을 읽는 '생존의 센서' 역할을 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살아남고 변화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어느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준비된 존재는 없다. 중요한 건, 그 환경을 얼마나 민감하게 감지하고, 거기에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끊임없이 바뀌는 생태계와 같다. 직업, 기술, 인간관계, 삶의 조건까지 빠르게 변화한다. 이 속도감 속에서 필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부딪히고 체득한 감각**, 그리고 그 감각을 기반으로 한 적응력이다.

핀치새는 생물학적 진화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삶의 방식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겪고, 감지하고,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만** 생존도, 성숙도 가능하다. 진화는 거창한 말이 아니다. 반복되는 경험을 버티고 이겨낸 생명력의 다른 이름이다.

Text. 편집실

훅 들어온 선배의 조언! 후배의 끄덕끄덕 속내는?

한 TV 토크쇼에서 사회자의 물음에 초등학생이 답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빠요." 조언을 듣는 이의 미묘한 감정을 툭 까놓고 표현한 아이의 답은 모두를 빵 터지게 했다. 후배를 위하는 마음에 던지는 선배의 돌직구 조언도 이와 같을까. 미륵보살의 표정으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후배의 속내만큼은 시끄러울지도 모른다.

대화

속마음

끄덕끄덕, 하지만 마음은 시끌벅적

매운맛과 단맛을 넘나드는 직장 생활 속 조언. 선배는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와 한 조언이지만, 후배는 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주섬주섬 챙긴다. 겉으로는 "넵!"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머릿속에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쏟아지는 것. 양쪽의 마음을 모두 들여다봤다.

#관심법이 필요한 순간



#보이지 않는 1,000억 자산



#뜨거운 아아 한잔 말아주세요



#타이밍의 저주에 걸린 직장인



진심은 한 박자 늦게 찾아온다

직장 내 대화는 단순한 말보다 훨씬 복잡하다. 후배의 무한 긍정과 감사의 태도 속에는 긴장과 걱정이 들어 있기도 하며, 선배조차도 보이지 않는 부담과 속내를 숨기고 있을 때가 있다. 오늘도 회사 구석구석에서 미묘한 심리전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다.

#애매한 피드백의 늪



#질문은 언제든지 해! 라는 말의 진심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 지양해야 할 태도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처럼 선배든 후배든 기본적인 매너를 갖춘다면, 서로 기분이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혹여 분노가 차오르는 일이 생길 때도 '이 부분은 나의 행동도 부족했던 것 같아'하며 나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선배



어떤 조언이든
고분고분 받아들이기 원하는
'강요형'

"선배가 말하면 말이야~
네!! 하는 거지~ 토 달지마!"



과한 자신감으로
모든 사례를 일반화하는
'난 다 알아형'

"내가 다 해봤어~ 무조건
내 말만 듣고 따라 하면 돼!"



상황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부터 하고 보는
'일단 들어봐형'

(만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입도 아닌데,
왜 매번 실수야?"

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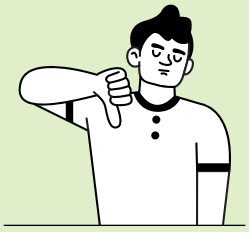
정당한 지적이나 훈계도
꼰대로 치부하는
'역꼰대형'

"아 진짜,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나 몰라~"



조언 일절 무시!
내 생각만 맞다는
'답정너형'

"네네! 그런데 제 일이니까,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나이 든 세대의 말은
무조건 틀렸어!
'선입견형'

"왜 저래~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냐?"

ISSUE ①

넥센타이어, ‘Vision 2030: Next Level 5.0’ 선포

Text. 미래전략팀 이영대 수석









지난 4월 2일, 넥센타이어는 전사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석 사장은 넥센타이어의 미래 방향성과 목표를 담은 'Vision 2030: Next Level 5.0'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2030년까지 매출 4조 원을 넘어 5조 원을 향해 도약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현석 사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가격 경쟁력(Price Index) ▲제품 포트폴리오(Product Portfolio) ▲생산 역량(Manufacturing Capability) ▲다운스트림 안정성(Downstream Stability) ▲인사 및 조직문화(HR & Culture)를 제시하고,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 선포식은 'Vision 선언문' 낭독에 이어 김현석 사장을 비롯해 김대중 BG장, 김종명 연구소장, 김철준 BG장, 구본형 BG장, 고형석 BG장, 오세인 BG장이 함께한 'Vision 프린팅 세리머니'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ISSUE ②

넥센만의 정체성 되새긴 ‘창립 83주년 기념식’

Text. 인재개발팀 김희진 책임



지난 4월 30일, 넥센타이어가 창립 83주년을 맞아 더넥센 유니버시티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양산공장과 창녕공장 등도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기념식에 함께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대표자 표창과 함께 김현석 사장의 기념사가 진행됐다.

김현석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넥센타이어의 정체성을 다시 새기자”고 강조하며,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떻게’ 함께 성장할지를 끊임없이 자문하고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빠르게 우리 것으로 만들자”며, 새로운 시스템과 환경에 대한 능동적 수용 태도를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노사 간의 상생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자”며, 지금까지의 성숙한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존중과 소통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개 회

ISSUE ③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한 ‘2025 퍼플 서밋 뮌헨’ 성료

Text.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넥센타이어가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행사 '퍼플 서밋 2025(Purple Summit 2025)'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퍼플 서밋은 넥센타이어가 2016년부터 세계 각국의 주요 거래선을 초청해 장기적 비전과 협력 방향을 공유하는 글로벌 마케팅 행사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신뢰도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활동의 일환으로 지속돼 왔다. 특히 올해 행사는 FC 바이에른 뮌헨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처음으로 독일에서 개최됐으며, 유럽을 비롯해 북미, 아시아, 중남미 등 글로벌 전략 시장으로 브랜드 접점을 확대하여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넥센타이어는 퍼플 서밋을 비롯한 현지 밀착형 활동을 통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장 기반도 구축해 왔다. 2012년부터는 해외 완성차 업체에 대한 첫 OE 공급을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카 메이커와 협업을 넓혀왔으며, 체코 자테츠(Žatec)에 위치한 유럽 공장은 올해 2단계 생산능력 증설 완료를 앞두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FC 바이에른 뮌헨과의 스폰서십을 단순한 후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퍼플 서밋에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초청된 약 50명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참석해, 넥센타이어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유럽 시장 공략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장인 알리안츠 아레나 투어, 현장 경기 관람 등 바이에른 뮌헨 고유의 브랜드 자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들이 넥센타이어의 프리미엄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넥센타이어는 "퍼플 서밋은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 기반 위에서 넥센타이어의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며,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SSUE ④

넥센타이어, 글로벌 기업가 단체 EO 초청해 기술력과 경쟁력 소개

Text. 넥센타이어 보도자료

넥센타이어가 지난 5월 17일 세계적 기업가 네트워크인 'Entrepreneurs Organization(EO)' 소속 회원들을 초청해 사옥 투어 및 교류 행사를 열고, 넥센타이어의 위상과 브랜드 경쟁력을 소개했다. EO는 전 세계 80개국 이상, 약 19,000명의 혁신 기업가들이 활동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로, 각국의 선도 기업을 직접 방문해 산업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EO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서울 마곡에 위치한 넥센타이어의 중앙연구소인 더 넥센유니버시티를 방문해 R&D 역량과 스마트 연구 시스템을 경험했다. 이 자리에서 넥센타이어는 글로벌 성장 스토리와 브랜드 마케팅 사례를 소개하며,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물놀이 공연이 마련돼 비즈니스와 문화가 어우러진 교류의 장을 조성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방문을 단순한 기업 탐방을 넘어, 글로벌 기업가 단체를 대상으로 넥센타이어 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직접 소개하는 자리로 삼았다. 넥센타이어는 “EO와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넥센타이어 산업의 위상과 당사의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넥센타이어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 적극 전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SSUE ⑤

푸르른 산속에서 펼쳐진 노사 화합의 장

Text / Photo. YP기업문화팀 총무계 강동환

넥센타이어가 지난 5월 18일, 경북 포항 내연산 보경사 12폭포 일대에서 노사 합동 산행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산행에는 넥센타이어 박주홍 노동조합 위원장, 김상섭 산악회 회장(YP생산2팀 가류파트), 김철준 글로벌생산 BG장, 정준욱 인사지원 BS장을 비롯, 임직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도 함께 참여해 8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당일 오전 8시, 양산종합운동장 개선문에서 집결 후 포항 보경사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산행 코스는 보경사 주차장을 출발해 상생폭포, 관음폭포를 지나 다시 보경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약 5km 원점 회귀 코스로, 난이도는 '쉬움' 수준이었다. 산길 곳곳에 흐드러지게 핀 때죽나무 꽃은 초록이 짙은 산천과 어우러져 봄의 정취를 더했고, 자연 속에서의 트레킹은 노사 간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생산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로 거듭났다. 참가자들은 산행을 마친 후에는 식사를 하며 노사 화합의 정을 나누며 하루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주홍 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늘의 발걸음이 노사 간 신뢰를 되새기고, 더 나은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YP)가류 김상섭 산악회 회장도 "푸르른 5월 숲길에서 동료들과 함께한 시간이 참으로 소중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산행을 통해 건강과 화합을 함께 다져가자"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노사 합동 산행은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따뜻한 기업문화와 더불어, 생산성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회사는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ISSUE ⑥

숨 막히는 빅 매치!
노동조합 지부장배 족구대회

Text. CP노사협력파트 이강우 파트장



지난 4월 8일 창녕공장에서 노동조합 지부장배 족구대회 결승전이 펼쳐졌다. 4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토너먼트로 진행된 지부장배 족구대회에는 창녕공장 임직원 모두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족구대회는 부서별로 선발된 대표선수로 구성된 총 8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렀다.

창녕공장 사내 족구장에서 진행된 예선전 결과 공무팀, 품질검사팀, 연구소+생산기술+인사지원 연합팀, 정련파트 총 4팀이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 결과, 품질검사팀과 연합팀이 결승에 진출, 3·4위전 경기는 마지막 순위 쟁탈전인 만큼 치열했으며, 결과는 정련파트가 공무팀을 누르고 3위에 올랐다.

족구 재야의 고수들이 모여 진검승부를 가리는 결승전은 경기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족구대회 우승을 위해 연습에 매진하며 흘린 땀의 시간을 알기에 각 팀 응원단의 응원 소리도 더욱 커졌다. 양 팀 선수들의 파이팅 소리와 함께 길게 이어지는 랠리는 긴장감을 더했다. 환호와 탄식이 이어진 명승부 끝에 품질검사팀이 연구소+생산기술+인사지원 연합팀을 누르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시상식을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지부장배 족구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인구 지부장은 "금번 족구대회를 통해 창녕공장 임직원 모두가 단결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이 함양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NEWS

기아 첫 전기 세단 EV4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넥센타이어가 기아의 첫 전기 세단 '더 기아 EV4'에 신차용 타이어로 '엔페라 슈프림 S'를 공급한다. 공급 제품에는 전기차 특유의 높은 토크와 정숙성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핸들링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패턴이 새롭게 적용됐다. 기아 EV4에 장착되는 '엔페라 슈프림 S'는 사계절용 프리미엄 타이어로, 고성능과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품이다.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정숙성과 제동력을 고르게 갖춘 균형 잡힌 성능으로, 고속 주행과 일상 주행 모두에 적합하다.

하중 분산 기술과 4D 컴파운드를 적용해 접지력을 높이고, 장거리 및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준다. 패턴 형상 유지 기술이 적용되어 50%가 마모가 진행된 이후에도 트레드 성능이 오래 유지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공기 저항을 줄이는 사이드월 디자인을 통해 연비 효율도 함께 고려했다.

넥센타이어가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한 기아의 전략적 모델인 EV4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된 것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아 함께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넥센타이어는 기아 EV3, EV4, EV6, EV9 등 주요 EV 시리즈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24/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ESG 공시 체계 강화



넥센타이어가 글로벌 ESG 기준에 기반한 '2024/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처음으로 연결 기준 자회사(해외법인 11개 사업장)까지 포함한 성과 지표를 정식 반영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정밀 산정 범위를 넓혔다. 회사가 직접 배출하는 Scope 1부터 외부 밸류체인까지 포함한 Scope 3의 15개 전 카테고리까지 전 영역에 걸쳐 산정 및 외부 검증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자사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실질적인 감축 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 기조에 발맞춰, 타이어 제품에 적용할 지속가능 소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생·재활용 원재료 10종 23개를 추가로 발굴해 제품 적용 가능성을 연구 중이며, 지속가능 원재료를 최대 70%까지 적용 가능한 타이어 제조 기술도 새롭게 개발했다.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기준도 보다 세분화하며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국제 기준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의 LEAP(Locate · Evaluate · Assess · Prepare) 프레임에 따라 사업장별 물리적 리스크를 수치로 분석했고, 창녕 공장 인근 50km 안에 있는 멸종 위기종 서식지와 보호지역도 전수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했다.

산업안전 부문에서는 설비 투자 및 리스크 평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불꽃 감지기, 비상 방송설비, 방화셔터 등 화재 예방 장비를 강화하고, 24시간 전담 인력이 상주하는 방재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10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관한 '제1회 안전문화혁신대상'에서 대기업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지배 구조와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도 제고에도 힘썼다. 올해 여성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 이사회 내 성별과 직무 전문성을 넓혔고, 전체 이사 중 사외이사 비율은 62.5%로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했다.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글로벌 정보 보안 인증인 TISAX(Trusted Information Security Assessment Exchange) 획득 사업장을 국내 양산공장과 창녕공장을 포함해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했고, 개인정보 관련 사고도 3년 연속 '0건'을 기록했다.

‘윈가드 스포츠 3’,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 수상



넥센타이어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겨울용 타이어 ‘윈가드 스포츠 3’로 제품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어워드는 ▲혁신성 ▲기능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이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수상으로 2년 연속 수상작을 배출하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번에 본상을 수상한 ‘윈가드 스포츠 3’는 겨울철 고성능 주행을 지원하는 기술력과 직관적인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이다. 새의 날개에서 착안한 ‘V’자형 트레드 패턴으로 눈길에서도 뛰어난 견인력과 조향 성능을 확보했으며, 저온에서도 고무가 유연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돼 혹한기에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사이드월에 적용된 그래픽과 눈송이 마크는 스포티한 감성과 겨울용 타이어의 기능을 조화롭게 표현해 디자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품은 특히 최신 AI 기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트레드 패턴을 정밀 설계하고, 실제 차량 테스트 이전에 구조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개발됐으며, 2025년 겨울 시즌에 맞춰 유럽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오리지널 웹 예능 콘텐츠 ‘티어메이커’ 공개



넥센타이어가 브랜드 오리지널 콘텐츠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웹 예능 ‘티어메이커’를 최초 공개했다. ‘티어메이커’는 넥센타이어의 브랜드 친밀도를 높이는 동시에 회사가 지향하는 고객 경험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부터 브랜드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를 새로운 고객층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티어리스트는 최근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리잡은, MZ세대 사이에서 개인의 취향과 선호를 자유롭게 등급화해 공유하는 문화다. 이러한 티어리스트를 정하는 사람을 ‘티어메이커’라고 부른다. 넥센타이어는 본격 취향 서열 정리 토크쇼 ‘티어메이커’를 통해 타이어 제품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 마케팅, 맨체스터 시티 및 바이에른 뮌헨 스폰서십 등 다양한 브랜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티어메이커’의 진행은 가수 겸 배우로 활약 중인 최예나가 맡았다. 5월 9일에 공개된 첫 화에서는 소녀시대 효연이 게스트로 출연해 실제 취향과 경험을 바탕으로 ‘꼭 가보고 싶은 최고의 캠핑 장소’ 티어리스트를 완성하고 캠핑이라는 주제에 맞춰 넥센타이어의 프리미엄 컴포트 타이어 ‘엔페라 슈프림’도 소개했다. 6월 7일에 공개된 2화에서는 K-POP 아이돌 그룹 크래비티의 멤버, 형준과 원진이 출연해 ‘컴백 준비 기간 가장 참기 힘든 음식’ 티어리스트를 만들며 맛집으로 가는 드라이빙에 필수인 타이어 점검을 위한 전문점, 타이어테크와 엔페라 프리머스 AS T1 제품을 소개했다.

‘티어메이커’ 다음화는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넥센타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HELLO NEXEN

참여해주세요

〈헬로우 넥센〉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
사내 특별한
소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

참여 및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헬로우 넥센〉
구독 및 구독 정보 변경을
원하시는 사내외 독자는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의
사보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보 담당자
인재개발팀 김희진 책임
hellonexen@nexentire.com

〈헬로우 넥센〉 100호 이벤트 참여

〈헬로우 넥센〉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하단의 QR 코드 스캔하기

▼

이벤트 참여하기

▼

인적사항 기입

▼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당첨자 확인과 상품 발송을 위해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00호를 맞이하며
_ 편집자



안녕하세요. <헬로우 넥센> 담당자 인재개발팀 김희진입니다.

‘100’이라는 숫자 앞에서 설레는 마음 반, 부담스러운 마음 반.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분주하게 100호를 준비했습니다.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풍성하게 채우고 싶은 욕심이 커 아마도 부담이 설렘보다는 좀 더 컸던게 사실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한다는 건 구성원으로서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사보 담당자로서 100호를 기획하고 발행하게 되었다는 건, 어쩌면 제게 주어진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사보를 이끌어주신 선배 담당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100호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보를 맡은 지도 어느덧 햇수로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앞서 이것저것 기획도 많이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섭외가 안 되어 혼자 조급했던 날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도와줄게요’, ‘제가 참여할게요’, ‘잘 보고 있어요’라고 따뜻하게 말 해주시는 동료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보 담당자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전사 구성원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엔 몰랐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며, 때로는 놀라운 취미에 자극도 받고, 때로는 재밌는 사진을 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헬로우 넥센>이 100호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언제나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기꺼이 원고를 써주신 분들, 바쁜 시간 내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 그리고 매호 꼼꼼히 읽어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50호, 200호… 그 너머의 <헬로우 넥센>도 지금처럼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또 멀리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헬로우 넥센> 역시 PC나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웹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사보만의 ‘낭만’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천천히 읽는 감촉, 앞페이지와 뒷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 맛, 책상 위에 얹어놓고 펼쳐 보는 그 짧고도 조용한 순간이 주는 따뜻함은 여전히 특별하니까요. 그래서 <헬로우 넥센>은 앞으로도 이 아날로그 감성을 소중히 지켜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우 넥센> 담당자 김희진 책임 올림


NEXEN TIRE
we got you